

# ‘전남 의대 공모’ 로드맵 윤곽... 순천권 반발 여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 포럼 3단계 공모 방식...전문가그룹 조직 올해 인가...내년 시설·교원 등 확보 순천권 “용역 공개 직후 회동 성급”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 절차와 로드맵 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공모 방식에 대한 동부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전남도가 목표하고 있는 추천대학 선정까지의 기간 달성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개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완수하기로 다짐하는 동시에 정부에 추천할 대학 선정 원칙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범도민추진위 허정·이주희·주상윤·강윤성 공동위원장, 최순모 고문, 범희승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범도민추진위 위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남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공모 방식의 4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지난 14일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열린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의대 설립 포럼’에서 의대 신설 상생·화합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대 원칙은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 위탁 등 4가지다.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역에서 국립 의과대학을 유치할 추천대학을 선정하는데 공모 방식을 진행, 이를 위해 3단계의 절차를 수립했다.

먼저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 의대를 비롯한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한다. 이어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심사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해당 절차를 위해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이 별도 조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신설될 국립의과대학이 2026학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기별 로드맵도 공개했다.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공모 절차를 위한 용역기관 선정까지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모는 4

~5개월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초까지 추천대학이 결정되면 10월께 교육부에 추천 절차를 밟고 올해 말까지 정원 배정 등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의과대학 관련 시설과 교원 등을 확보하고 5~6월께 이뤄지는 입시요강 마련 및 정원을 확정 지어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로드맵이다.

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용역기관 선정까지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달 2일 지역에서 국립

의대를 설립할 정부 추천대학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초 발표 이후 순천대학교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모 방식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 공모 불참을 선언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 관련 기존 용역 결과 공개 △구체적인 공모 기준 및 지표 공개 △탈락 지역에 대한 건강권 대책 수립 등 3가지 방안을 전남도에 제안하고, 이를 이행할 시 공모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3일 2021년 추진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17일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목포시와 목포대학교 등 ‘5자 회동’을 다시 제안했지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순천권에서는 앞서 제안한 조건 중 일부만이 받아들여졌음은 물론, 과거 용역 결과를 공개한 직후 곧바로 회동 일정을 통보했다는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범도민추진위 포럼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로,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어느 한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미선정 지역에 대한 도민 건강권과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 이준석, 김해 국화 1천 송이 들고 5·18 참배

이주영·천하람 당선인 동행 1·2묘역 모든 열사 묘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여 송이를 들고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모든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이 동행했다.

이 대표 일행은 이날 오전 2시30분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여 송이를 차량에 싣고 민주묘지를 찾았다.

영·호남 화해의 의미를 담아 영남에서 최근까지 출하하는 국화를 직접 공수, 당선인 3명이 밤새 직접 번갈아 운전해 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이 대표 일행은 1묘역 내 1구역부터 차례로 열사 묘를 일일이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 3명은 번갈아가며 열사 묘 앞에 큰 절을 하거나 헌화, 묘비 닦기 등을 했다.

이 대표의 제안으로 알려진 이날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왼쪽) 대표가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이주영·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헌화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시스**

는 5·18민주묘지 내 1·2묘역 모든 안장 묘 995기에서 펼쳐졌다.

정치인이 5·18 민주묘지 내 안장된 모든 열사 묘를 참배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것

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묘역 1구역 참배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 정치인들이 5·18 묘역을 찾아 많이 참배하지만 저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 중에서 일부만 찾아뵙는다. 제 스스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느꼈다”며 “1000여 기에 달하는 (열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5·18이 광주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다. 그래서 꽃을 구할 때 최대한 결국 경상도에서 구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지금 국화가 재배·출하할 수 있는 곳 중 김해를 선택해 이날 새벽 바로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Yes &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